

현 장 방 문 결 과 보 고 서

(타지역 노인전문 요양병원)

□ 일 시 : 2005. 6. 15(수) 09:00 ~ 22:00

□ 장 소 : 4개 기관

- 경북안동(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 단양군의회
- 충북단양(단양노인요양전문병원)
- 충북충주(충주시노인전문병원)

□ 참 석 : 14명(윤영길 의장, 김택호 부의장, •백옥배•임성수•이상진•
변우정•전인철•정재화•박세채•손홍섭•허복•정성기•
이정임•박배원 의원)

□ 방문결과

구미시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타 지역(안동, 단양, 충주)시설 방문을 통하여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을 안건심사시에 반영하여 심도있게 결정코자 하였음.

□ 방문지현황 : 별첨

□ 현장대화내용 : 별첨

□ 방문지 현황

구분	단양 노인요양전문병원	도립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위 치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경북 안동 남후면 무릉리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면 적	대 지 979평 연면적 956평	대 지 1,500평 연면적 1,000평	대 지 2,900평 연면적 1,196평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지하 1층 지상 7층	지하 1층 지상 3층
병 상 수	72병상	260병상 (증축180)	120병상
사 업 비	3,974백만원	6,240백만원	4,400백만원
운 영 방 법	군 직영	위탁운영 (유리의료재단)	위탁운영 (혜광의료재단)
개 원 일	2004. 6.16	1999. 5.10	2005. 3. 14
진료과목	내과, 신경과	내과,신경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내과,신경과, 정신과,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직 원 수	54명(의사2) <2담당 14명>	260명(전문의6)	42명(의사3)
입원대상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등)
월 평 균 입 원 비	일반 1,000~1,300천원 의료 300~ 600천원	일반 1,200천원 의료 600천원	일반 1,300~1,500천원 의료 700천원
연 락 처	043)423-8844 진료담당	016-517-9999 기획실장 054)851-1259	043)855-9393 박성찬대리 011-9421-7250

□ 현장대화내용

《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

■ 일반현황 설명

- 임성수 의원 : 현재 국도비, 시비 지원받는 것이 있나?
- 병원관계자 : 처음 건축비와 장비구입비는 지원받았으며, 대지 2,000평 시에 기부채납을 했으며 현재 지원받는 것은 없음.
- 변우정 의원 : 공공기관에서 운영시 만성적자가 예상된다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 병원관계자 : 민간위탁시 200병상에 1인당 본인부담금과 보험수가 포함해서 200만원으로 보면 1달에 4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의 얘기임.
- 변우정 의원 : 직영이든 위탁이든 운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른 것 아닌가?
- 병원관계자 : 공공에서 운영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것임.
- 손홍섭 의원 : 증축시에도 공사비를 도에서 지원받았나?
- 병원관계자 : 총 31억4,000만원 지원받았으며, 국비 15억7,000만원, 도비 15억7,000만원 받았음.
- 손홍섭 의원 : 직영과 위탁시 입원비 차이가 40~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와 '96년 선정을 해서 '99년 개원했는데 수탁조건이 몇 년인지 재계약은?
- 병원관계자 :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 환자는 100~120만원 정도이며, 의료보호 환자는 40~45만원 정도임.
- 손홍섭 의원 : 직원이 128명인데 공공기관 직영시 인건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만큼 입원비는 줄어들지 않나?

- 병원관계자 : 간병비에서 차이나고 다른 것은 차이나는 것이 없음.
- 손홍섭 의원 : 직원 128명에 대한 인건비가 법인 부담인데 직영시 직원 인건비를 시예산에서 지원되니 그만큼 차액이 발생하지 않나?
- 병원관계자 : 인건비 지원받으면 비용은 다운되겠음.
- 의장 윤영길 : 128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정도 되는가?
- 병원관계자 : 2억8,000만원 정도임.
- 변우정 의원 : 입원비가 1달에 100~120만원인데 이용하는 분의 부담이 되지 않나?
- 병원관계자 : 부담이 됨.
- 의장 윤영길 : 100~120만원 받아서 2003년부터 흑자인데 몇 % 정도 흑자인가?
- 병원관계자 : 2003년 수입 34억9,000만원 비용 34억5,900만원, 2004년 수입 49억3,400만원, 비용 49억2,800만원이며, 올해는 70~80억 수입에 1억 정도 흑자를 예상함.
- 의장 윤영길 : 80명상 시 직원은?
- 병원관계자 : 90명 정도임.
- 전인철 의원 : 흑자난 이익금은 병원에 재투자하나?
- 병원관계자 : 재투자함.
- 전인철 의원 : 도와 협약서상에 이익금을 재투자 한다고 되어있나?
- 병원관계자 : 사회 환원과 재투자 한다고 되어 있음.
- 전인철 의원 : 의료장비 구입시 도에서 지원을 받나?
- 병원관계자 : 장비구입비는 지원을 받았음. 증축후에도 장비구입비 지원을 받았음.
- 전인철 의원 : 평상시 장비구입은 어떻게 하나?
- 병원관계자 : 500~1,000만원 정도 적은 금액은 자체구입 함.
- 변우정 의원 : 고가장비 구입은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사실 아닌가?

- 병원관계자 : 그렇음.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원을 받아서 교체함.
- 의장 윤영길 : 장비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나?
- 병원관계자 : 8년으로 봄.
- 손홍섭 의원 : 의료서비스는 장비에 의존하는데 새로운 장비 구입 시 도에 요청할 것이고 적은 금액은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데 2003년부터 흑자가 되었는데 이익금 부분을 입원비 낮추는 방향으로의 검토는?
- 병원관계자 : 간병비 낮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음.
- 정성기 의원 : 외래환자 받는 비율은 몇 % 인가?
- 병원관계자 : 15~20% 정도임.
- 정재화 의원 : 경북도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입원하려면 절차는?
- 병원관계자 : 보건지소 진료소나 병원에 의뢰해서 하면 됨.
- 정재화 의원 : 260명상으로 입원하려는 환자가 다 소화되나?
- 병원관계자 : 증축해야 안되겠나 생각함.
- 손홍섭 의원 : 도내 도립병원은?
- 병원관계자 : 안동, 김천, 포항, 경산에 있음.
- 의장 윤영길 : 128명 인건비가 2억8,000만원이면 흑자가 많이 발생하지 싶은데?
- 병원관계자 : 앞에 말씀드린 것 중 상여금 부분은 제외되었음.
- 정재화 의원 : 침대가 있는 병상과 없는 병상의 차이는?
- 병원관계자 : 낙상의 우려 임.
- 정재화 의원 : 65세 이상이어야 입원할 수 있나?
- 병원관계자 : 연령 제한은 없음.
- 박배원 의원 : 1인실도 있나?
- 병원관계자 : 10개 정도 있음.
- 의장 윤영길 : 본인부담 100~120만원 받고 보험공단에서 또 받는가?

- 병원관계자 : 보험공단에서 받는 것을 합쳐서 1인당 200만원 정도로 보면 됨.
- 손홍섭 의원 : 건물 설계는 어디에서 했나?
- 병원관계자 : 도에서 했음.

《 단양군의회 》

■ 단양군의회 의장 인사

- 의장 윤영길 : 노인치매병원 예산관계로 방문 했음.
- 단양군의회의회장 : 업자 위탁시 질이 떨어지는데 직영하니 질이 높아짐. 예산은 국도비 받아서 투자했으며 국도비에 의존하는 실정임.
- 손홍섭 의원 : 직영 결정시 많은 자료 수집을 했을 것이며 타 병원 방문도 많이 했을 것인데 결정 과정을 알고 싶어서 방문했음.
- 단양군의회의회장 : 처음에는 유보도 했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집행부 의지가 강했으며 의원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도 챙겨서 의원들에게 알려 주었음. 예산은 많이 들어 가는데 잘 운영되고 있음. 처음 시작할 때 보건소장이 타 병원에 잘 운영되는 곳보다 안되는 곳을 많이 가보고 검토도 많이 했음.
- 손홍섭 의원 : 지금 시점에서 잘 하셨다고 판단을 하는지?
- 단양군의회의회장 : 이용하는 분이 전국에서 단양이 좋다고 해서 오는 실정인데 오는 분 중에 후생복지가 다른 큰 병원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으며 지금은 병상이 다 차서 선별해서 받는 실정임.
- 의장 윤영길 : 직영과 위탁을 검토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단양은 외부에서 많이 온다는 것 아닌가?
- 단양군의회의회장 : 그렇음. 직영시 안동은 120만원 정도이며 충주는 1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으며 단양은 병상이 다 차서 선별해서 받고 있음.

○ 허복 의원 : 직영시 예산요구가 많지 않나?

○ 단양군의회회장 : 그렇음.

《 단양노인요양전문병원 》

■ 일반현황 설명

○ 의장 윤영길 : 의료보호 환자는 몇 명인가?

○ 병원관계자 : 30명임.

○ 전인철 의원 : 연간 15명에 대한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체 조달하는데 장비는 어떻게 하나?

○ 병원관계자 :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기본 장비는 처음 설립 시 구입했음.

○ 전인철 의원 : 처음에는 군수님이나 직원들의 사명감으로 일을 하나 계속 직영시 격무부서 기피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걱정임. 자료수집차 방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주었으면 함.

○ 병원관계자 : 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싫어하는 실정임. 현업부서 지정이나 특정활동수당, 인사고가가 선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다 싫어하는 실정이나 큰 대의를 생각한다면 해야 한다고는 봄.

○ 전인철 의원 : 선행조건이 될 수 있겠나?

○ 병원관계자 : 현재는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음.

○ 전인철 의원 : 직영시 의료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나?

○ 병원관계자 : 현재는 없으며 공무원 신분이라 처음부터 걱정한 부분이 그것임.

○ 전인철 의원 : 다른 병원의 사례는 알아본 것이 있나?

○ 병원관계자 : 위탁하면 병원에서 보험으로 처리하든지 재단에서 책

임을 짐.

- 전인철 의원 : 직영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었을 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가?
- 병원관계자 : 의사분은 전문의 아니면 올 수 없고 서울병원에 근무하셨던 분이라든지 좋은 의사분을 썼음.
- 전인철 의원 : 환자들이 진료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었나?
- 병원관계자 : 전혀 없었음.
- 손홍섭 의원 : 고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운영면에서 보완하면 공무원 신분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
- 병원관계자 : 근무 여건과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함.
- 손홍섭 의원 : 두 번째 방문한 배경도 개인 위탁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전체 의원이 방문한 것임. 구미에서 단양처럼 공무원들이 헌신할지도 의문이며 단양만큼 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구미에 어드바이스 해 주었으면 함.
- 병원관계자 : 지도자의 생각과 지역 여건이 중요함. 단양의 경우 큰 병원도 없고 노인병원이 없어서 효과를 봤다고 보나 구미는 종합병원도 많이 있으니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임.
- 의장 윤영길 : 정규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체 충당을 하는데 정규직 15명에 대한 인건비는 1년에 얼마나 되나?
- 병원관계자 : 그쪽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음.
- 의장 윤영길 : 의료보호 1종은 입원비가 30~40만원인데 몇 분이 입원해 있나?
- 병원관계자 : 30명임.
- 의장 윤영길 : 격무부서에 대한 수당지급이나 행자부에서 지급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나?
- 병원관계자 : 안되어 있음. 전국 최초라서 사례가 없어서 안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근거가 미비함.

○ 손홍섭 의원 : 특별회계에서 주면 안되나?

○ 병원관계자 : 1년밖에 안 되어서 특별회계에서 받는 것은 그렇음.

○ 전인철 의원 : 72명상에 정규직 15명이면 구미는 150명상인데 정규직을 배로 봐야 안 되나?

○ 병원관계자 : 건물 구조만 잘 지으면 그렇지 않음.

○ 의장 윤영길 : 단도직입적으로 직영이 좋나 위탁이 좋나?

○ 병원관계자 : 말씀드리기 곤란함.

○ 정재화 의원 : 1년 운영해 본 결과 직영과 위탁에 대한 분석은?

○ 병원관계자 : 단양군의 경우는 공무원이 힘이 들지만 직영이 좋으나 구미의 경우는 지역 여건이 틀려서 다르다고 봄.

○ 의장 윤영길 : 직영하는 곳은 단양이 전국에서 하나뿐이라서 장단점을 검토 후 결정하려고 방문했음.

○ 손홍섭 의원 : 정규직원 15명인데 건물을 잘 지으면 150명상이라도 배로 정규직원이 필요 없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병상과 인원을 잘 운영하면 효율이 있다는 것인데 건물 구조를 잘 지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 병원관계자 : 그렇다고 봄.

《 충주시노인전문병원 》

■ 일반현황 설명

○ 이정임 의원 : 7,800평 기부채납을 했는데 국도비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인가?

○ 병원관계자 : 건축비 31억5,000만원 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받았으며, 건축을 해보니 더 들어가서 자부담 6억 정도 포함해서 11억 정도 재단에서 부담을 했음.

○ 이정임 의원 : 의료기구 구입은?

- **병원관계자** : 2002년 이후 보건복지부 책정액이 4억4,800만원 정도 인데 2억2,000만원 국비고 나머지 도비인데 도에서 추가부담을 해서 전체 9억4,000만원 정도 받았음.
- **이정임 의원** : 직원 수는?
- **병원관계자** : 병상이 다 차면 95명에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현재는 50여명임.
- **이정임 의원** : 의료보호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비용은 얼마인가?
- **병원관계자** : 의료보호 환자는 60~80만원 정도로 보고 일반은 100~150만원 정도임.
- **정재화 의원** : 3개의 협력병원이 있어서 협력병원과 연계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계는 잘 되는가?
- **병원관계자** : 연계가 잘 되고 있음.
- **정재화 의원** : 환자 이송도 가능한가?
- **병원관계자** : 가능함.
- **손홍섭 의원** : 70~80개의 병원을 방문 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해광의료재단은 어떤 병원을 가지고 있나?
- **병원관계자** : 300병상의 병원을 가지고 있음.
- **손홍섭 의원** : 3개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중 이 곳의 입원비가 높게 책정된 이유와 120병상에 사업비가 44억이 들었고 추후 300병상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재단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몇 병상 이상으로 보나?
- **병원관계자** : 손익은 120~150병상으로 봄. 안동도 초기에는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병상수를 늘리고 기타 지역의 여건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양은 직영이라서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으며 단양의 경우는 인건비를 군예산에서 지원 받아서 낮은 것이며 전문병원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50~

60% 정도로 봄. 단순 비교는 어려움이 있음. 충주도립이나 대전시립이나 대구시립과 비교하면 이곳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봄.

○ **손홍섭 의원** : 대구나 안동이나 보면 단계적으로 병상을 늘릴때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도 300병상으로 늘리려는 계획인데 넓게 보면 지역의료봉사나 좁게 보면 해광의 흑자 경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 **병원관계자** : 꼭 그렇지는 않음. 조례상 이익을 법인에 가져갈 수 없게 되어 있음. 기부채납 7,800평을 한 이유도 사회환원 차원임. 다른 곳보다 100병상 더 높여서 300병상으로 하려는 것은 자의반 타의반임. 국회의원 공약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임.

○ **이정임 의원** : 계약기간은 몇 년인가?

○ **병원관계자** : 5년 정도 협약이 되어 있음.

○ **손홍섭 의원** : 광병원도 다녀왔는데 1차 개원후 증축하면서 시에 건축비 지원받고 장비구입비도 시에 지원요청 하는데 이곳은 300병상으로 가면 의료재단에서 5년 안에 채투자를 제외하고 시에서 필요한 장비구입비 지원받는 것 협약이 되어 있나?

○ **병원관계자** : 첨단장비 들여와도 재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음. 노인병원은 첨단장비가 필요 없음.

○ **손홍섭 의원** : 질문한 이유는 직영과 민간위탁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려고 하는 것임.

○ **병원관계자** : 직영으로 하면 31억5,000만원 가지고 이 정도 병원을 못 지음. 운영비 지원을 받으면 타시도 환자를 받는데 문제도 있음. 운영비 지원관계도 충주시의회 의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운영비 받으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안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음.

○ **의장 윤영길** : 충주시 인구가 23만인데 입원환자를 다른 지역에서 받아야 되지 않나?

- **병원관계자** : 현재 수급이 가능하며 지금 입원비가 150만원 정도인데 노인보장제도가 시행되면 본인부담금이 20~4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집에 있던 환자들이 병원으로 많이 올 것으로 봄.
- **의장 윤영길** : 방문 목적은 직영시 환자 혜택을 많이 줄 것이고 그 점 감안해서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방문했음. 이 곳이 다른 곳보다 입원비가 비쌌. 계약당시 제도적으로 되어 있나?
- **병원관계자** : 조례상 제정되어 있음.
- **의장 윤영길** : 금액은 상한선이 없나?
- **병원관계자** : 없음. 그리고 지역에 있는 환자를 구분해서 덜 받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됨.
- **손홍섭 의원** :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지역민을 위해서 덜 받을 수도 있지 않나?
- **병원관계자** : 구미에서 꼭 그렇게 하려면 서대문 시립병원의 경우를 참조하면 될 것임. 서울시의 경우는 자치단체 돈이 있어서 가능하나 지방의 경우는 재원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의장 윤영길** : 자부담을 총 11억 정도 했는데 재단에서 찾아가는가?
- **병원관계자** : 안 찾아감.
- **손홍섭 의원** : 대부분 민간위탁인데 계속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개인의 치매병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음.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임.
- **병원관계자** : 예를 들어 병원 건물 20년 정도 운영했으면 노후되어서 노인병원으로의 기능을 못함. 장비와 건물노후 등으로 20~40년 후면 불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함.
- **손홍섭 의원** : 재단측에서 감가상각비를 충당하면 가능하지 않나?
- **병원관계자** : 건물은 리모델링해도 한계가 있음.